

일본의 메이지유신과 문명화

-후쿠자와 유키치의 교육사상을 중심으로-

김 태 훈*

(e-mail: tkim@nier.go.jp)

目次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2. 생애
 3. 후쿠자와 유키치의 사상
 - 가. 서양사정(西洋事情)
 - 나. 학문의 권장(學問のすすめ)
 - 다. 문명론의 개략(文明論之概略)
 4. 후쿠자와 유키치의 교육관 및 인간관
 - 가. 교육관
 - 나. 인간관
 5. 결어 : 후쿠자와 유키치, 일본의 마키아벨리인가?
-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근대이후 일본의 변영은 1868년 명치(明治, 메이지)유신의 성공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일본은 명치유신을 통해 에도막부(江戸幕府, 에도바쿠후, 1603-1868)의 쇄국정책에서 탈피하여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 국가로 도약하였다. 명치 정부는 일본사상 단일법 조직아래서 재정, 군사, 문화 그 밖에 중앙집권적 통치 구조체제를 확립한 유일한 최초의 통일 정부이다. 일본의 문명화는 동아시아의 변방 국가였던 일본이 근대국가로서의 체제를 서구제국에서 찾으려했던, 즉 스스로 껍질을 깨고서 알에서 태어난 새의 모습과도 같았다.

명치유신의 성공은 일본에 유례없는 역사적 영광을 가져다주었다. 그 결과

* 일본문부과학성국립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교육정책사상사 전공

아시아를 제패했지만,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폭투하라는 인류역사상 최초의 피폭국이 되어 수많은 인명피해와 함께 패전의 쓴맛을 보고 끝났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과 전쟁을 치를 수 있을 정도로 강성한 대국이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사를 남겼다. 세계 최강국과 겨룰 수 있는 힘은 어떻게 길러졌을까? 이러한 역사의 바탕에는 강대국들과 국가의 운명을 건 승부도 불사하는 국가적 기백, 정치지도자들의 희생정신과 치밀한 외교 정책,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양된 국민적 감정과 국민들의 철저한 국가관이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1868년 명치유신을 통해 50년도 되지 않는 기간(1868-1912)동안 국제적 열강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문명화는 어떻게 가능했으며, 또한 어떤 시대적·역사적 배경에서, 그리고 어떤 지도자의 지도력에 의해서 가능했는가 하는 의문은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 1835-1901)의 생애와 사상을 다루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본고는 후쿠자와 유키치의 교육사상의 분석을 통해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 후쿠자와의 교육 사상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하여 고찰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후쿠자와 유키치에 관한 연구는 한일을 비롯해 아시아 뿐만 아니라 구미 각국에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종래의 후쿠자와의 연구들은 거의가 후쿠자와의 정치사상, 사회사상에 관한 연구들로 정치학, 사회학, 역사학 또는 국제관계학 분야에서의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학적 측면에서 접목한 연구는 있지만 거의가 그가 설립한 게이오기주쿠대학(慶應義塾大学) 관계자들에 의한 연구로 학교사 등 게이오기주쿠대학 설립에 관한 내용들이며 교육사상측면에서의 연구는 전무하다. 에도시대만 해도 조선을 통해 문명화를 꿈꾸었던 아시아의 변방국가에 불과했던 일본이 어떻게 해서 미국에 이어 세계 제 2의 지식 강국이 되었는지, 22명(미국적자 2명)¹⁾의 노벨수상자를 배출했는지, 여기에는 국력은 지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후쿠자와의 교

1) 일본의 역대 노벨상 수상자 목록 : 물리학상[湯川秀樹(유카와히데, 1949년), 朝永振一郎(토모나가신이치로우, 1965년), 江崎玲於奈(에사키레오나, 1973년), 小柴昌俊(코시바마사토시, 2002년), 小林誠(코바야시마코토, 2008년), 益川敏英(마스카와토시히데(1952년 동경대학 졸업 후 1970년에 미국국적 취득한 일본계 미국인), 2008년), [南部陽一郎(난부요우이치로우, 2008년)], 화학상[福井謙一(후쿠이켄이치, 1981년), 白川英樹(시라카와히데키, 2000년), 野依良治(노요리료우지, 2001년), 田中耕一(타나카고우이치, 2002년), 下村脩(시모무라오사무, 2008년), 鈴木 章(스즈키아키라, 2010년), 根岸英一(네기시에이이치, 2010년)], 의학생리학상(利根川進(토네가와 스스무, 1987년), 山中伸弥(야마나카 신야, 2012년)], 문학상[川端康則(카와바다야스노리, 1968년), 大江健三郎(오오에켄자브로우, 1994년)], 평화상[佐藤栄作(사토우 에이사쿠, 1974년)]. 21014년10월7일 2014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일본인 [赤崎勇(아카사키 이사무)], [天野浩(아마노 히로시)], [中村修二(나카무라 슈지미국적 일본인)]이 선정됨으로 일본인 또는 미국적의 일본인 2명을 포함해 22명이 되었다.

육사상의 강한 영향이 있었다고 본다. 본고는 후쿠자와의 생애와 후쿠자와의 저서를 중심으로 후쿠자와의 교육사상의 분석을 통해 후쿠자와가 국력신장을 위해 국민들에게 어떠한 교육을 행하려 했는지, 어떠한 계몽활동을 하였는지, 국력이 국민의 교육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는 오늘날, 본고의 목적은 르네상스를 이끈 이탈리아의 사상가인 마키아벨리(Niccolò Machiavelli, 1469-1527)²⁾로 비유되는 일본의 마키아벨리인 후쿠자와의 교육사상의 분석을 통해 현재 한국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와 교육자들에게 교육의 본연의 모습을 인식시키며 후쿠자와와 같은 통찰력을 가진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해명한다.

2. 생애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 1835.1.10-1901.2.3)는 지금의 오사카(大阪)에서 태어났다. 후쿠자와는 근대 일본의 최고의 계몽사상가이며 교육자이다. 후쿠자와의 사상을 논할 때 항상 실용주의, 실학주의, 계몽주의, 개인주의, 공리주의자라는 수식어가 항상 붙어 다닌다. 그는 3일천하로 끝난 1884년 조선왕조 말엽의 갑신정변의 주역인 김옥균(1851-1894) 및 조선 개화기의 사상가 유길준(1856-1914), 윤치호(1865-1945), 서광범(1859-1897) 등의 스승으로 한국 개화파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기도 하다. 또한 그는 게이오기주쿠대학을 설립하였는데 교육에 헌신한 그의 삶에 대한 존경심을 기리기 위해 학교법인 게이오 소속의

2)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의 저자로 잘 알려진 정치사상가이다. 그의 정치사상은 대표저작인 「군주론」과 「강론」(The Discourses on the First Ten Books of Titus Livius)에 나타나 있다. 당시 그가 살았던 피렌체는 서기 476년 서로마제국이 오도아케르에게 멸망한 이후 줄곧 외세의 침입에 시달리며 분열과 대립이 연속되어 왔던 이탈리아의 한 도시 국가였다. 마키아벨리가 살았던 시대에는 북이탈리아에는 신성로마제국의 호엔슈타우펜(Hohenstaufen)조가 쇠퇴하고 있었고, 여러 지역이 분리된 상태로서 나폴리 왕국, 밀라노 공국, 베네치아 공국, 피렌체 공국, 교황국가(Papal State) 등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통일된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의 강국인 프랑스, 스페인, 독일의 침략에 시달렸다. 일반국민들은 교황 중심의 통일을 주장했으나 마키아벨리는 교황에 의한 통일을 반대하고 세속권에 의한 통일을 구상했다. 「강론」은 리비(Livy)의 「로마사」(History of Rome) 첫 10권에 관한 주해서이다. 「군주론」은 「강론」의 핵심내용을 간추려 메디치 군주인 로렌조(Lorenzo di Piero de Medici)에게 헌정한 글이다.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통상적으로 역사가들이 통치자들에 대한 신성함을 표현하려 했던 점과는 달리 도시 국가의 배후에 있는 권력의 내부적인 모략관계들을 과감하게 폭로하며 비판하고 있다. 「군주론」으로 마키아벨리는 전제정치의 옹호자로 알려지게 되었지만 「강론」을 살펴보면 그의 공화론자의 면모를 알 수 있다. 마키아벨리의 사후에 출간된 「강론」의 핵심적인 주제는 ‘무엇이 로마 공화정으로 하여금 위대한 제국을 건설토록 하였는가?’하는 것이다. 그의 해석은 인민이 국가를 직접 통치했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위대한 성취를 이룰 수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Machiavelli, 2003, 강정인, 안선재 공역).

대학이하 부속학교에서는 다른 교수나 교원에게는 ‘선생님’이라는 칭호를 쓰지 않지만 유일하게 후쿠자와에게는 경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후쿠자와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일본에서는 1984년-2004년의 일본은행권 D호 1만 엔 권, 2004년부터의 E호 1만 엔 권에 후쿠자와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다. 왜 후쿠자와의 초상화가 일본화폐의 최고 고액권인 1만 엔 권의 주인공이 되었는가?

1958년 처음 발행되었을 당시에는 쇼토쿠타이시(聖德太子, 574-622)이었는데, 1984년 후쿠자와로 바뀐 이유는 당시 게이오기주쿠대학 출신의 거물급 정치가로부터의 압력이 있었다는 뒷이야기도 있지만 압력의 이유로는 후쿠자와가 일본의 사민평등이라는 근대사상에 끼친 영향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그 나라의 화폐에는 그 나라의 역사적 인물의 초상화를 사용한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후쿠자와가 최고 고액권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일본 역사에서 높이 평가받는 상징적인 인물임을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후쿠자와가 “하늘은 사람 위에 사람을 만들지 않았고, 사람 밑에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고 자신의 저서인 「학문의 권장」에서 말하고 있듯이 화폐에 이러한 사상가의 초상을 게재했다는 것은 재산의 유무와 관계없이 능력에 따른 평등사회를 실천하려 한 그의 사상의 의미를 국민들의 의식 속에 주입시키려는 의도가 크게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으로는 후쿠자와의 “일신독립 독립자존의 정신” 사상을 일본인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있다.

후쿠자와의 아버지는 무사계급 출신으로 유교에 능통한 한학자이며, 후쿠자와의 형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한학에 능통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후쿠자와는 어려서 부친을 여의고 외삼촌 나카무라(中村術平)의 양자가 되었는데, 이때문에 나카무라 유키치(中村諭吉)로도 알려져 있다. 호는 산쥬니코닌(三十一谷人)이고, 자는 코위(子圃), 시호는 한(일본어: 範)으로 한공(範公)이다. 그의 어머니는 당시 사농공상(士農工商)이란 엄격한 신분주의 사회에서 살아남는 길은 士(무사)와 동등한 신분이었던 승려가 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후쿠자와를 승려로 키우기로 결심했다. 후쿠자와 자신도 그의 저서에 의하면 당시의 신분제도에 강한 불신과 증오심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아버지와 형의 영향이 컸는지 그 자신은 어머니와는 달리 한학에 몰두했다. 학자만이 살 길이라 생각한 것이다. 후쿠자와는 당시 늦게 학문을 시작했지만 뛰어난 학문적 자질을 보여 특히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의 주요부분을 거의 암기할 수 있었고³⁾, 한학자의 전좌(前座)⁴⁾라 불릴 정도로 한학에 통달해 있었다. 후쿠자와에게 한학을 가르쳤다는 시라이시 쇼잔(白石照山, 1815-1883)은 지쿠젠(筑

前, 지금의 후쿠오카)에서 에도 후기 일본을 대표하는 유명한 한학자이자 유학자였으며, 의사였던 가메이난메이(亀井南溟, 1743-1814) 계통에 속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한다. 그의 학풍을 이어받은 제자들에 의해 훗날 가메이학(亀井學)이 성립되었는데, 가메이학의 관련 인맥으로는 분고(豊後, 지금의 오이타)의 한학과 서양과학을 함께 공부한 고명한 교육자 호아시반리(帆足万里, 1778-1852)나, 실천적인 교육가이었던 히로세탄소(広瀬淡窓, 1782-1856) 등이 있다. 이들은 근세 후기 큐슈의 학풍으로 조선의 유교의 강한 영향을 받은 자들로, 당시 조선에서 실용주의에 기반을 둔 현실개혁론적 학문인 실학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기도 하다.

이렇듯 실학의 영향을 받은 이유에서인지 후쿠자와는 그후 봉건적이고 계급적 질서의 근거로 비판 받았던 한학과 유학 등에 반발하여 한학을 접고, 그가 만 19세가 되던 1854년에는 난학을 배우기 시작해, 당시 최고의 난학자로서 이름을 날리게 되었다.

만 24세가 되던 1858년, 에도에 가서 네덜란드어 어학교인 난학숙(蘭學塾)을 열고, 후진양성에 힘썼지만, 요코하마에 갔을 때 후쿠자와는 그때까지 세계의 중심이 네덜란드라고 알고 있던 그가 세계의 중심이 네덜란드가 아니라 영국, 미국 등 영어권이라는 참담한 현실을 깨달아 학문의 방향을 영학(英學)으로 바꾸었다. 영어 공부를 독학으로 시작한 다음해인 1860년 그는 네덜란드 선박 함장의 수행원으로 미국에 건너간 뒤 막부의 구미지역 견외사절단으로 프랑스, 영국, 독일, 아프리카 등을 방문하고 귀국했다. 그리고 자신의 견문을 알리고 개항을 주장하는 한편, 학문 연구와 계몽사상 교육, 토론 교육과 언론 활동 등 정부 밖에서 명치유신의 이론적 토대와 개화와 청년 양성에 주력하였다. 이러한 기회를 살려 후쿠자와는 1860년대부터 개항과 개화를 주장하고 자유주의, 공리주의적인 가치관을 확립, 막부 철폐와 구습 타파 등을 주장하고, 부국강병론과 국가 중심의 평등론을 역설하였다. 그 후 1862년 유럽 체험을 토대로 한 구미여행견문록인 「西洋事情」(서양사정 초판 3권)을 1866년 집필하고 발행하게 되는데 당시 이 책들은 전대미문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 후 1867년에

3) 후쿠자와 유키치의 자서전에 이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중국의 역사서로 「사기」를 비롯하여 「한서」, 「후한서」, 「진서」, 「오대사」, 「원명사략」 등을 읽었는데, 특히 「좌전」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열다섯 권 중 서너 권 쯤에서 포기했지만, 나는 전부 다 읽었을 뿐만 아니라 열한 번 읽었다. 재미있는 부분은 암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한학자의 초보 수준은 되었다”(福沢諭吉述 『福翁自伝』 矢野由次郎記、時事新報社、1934년11월 (원저1899년6월)、13쪽).

4) 불교의 고승이 데리고 다니며 설법을 하기 전에 설법의 내용에 관한 개요를 설명하는 자에서 유래된 것으로 일본의 에도시대에 생겨 지금까지 계승되고 있는 전통적인 화술 기반의 예술 중 하나인 라쿠고(落語)등에서 정규프로그램의 선두주자를 가르침.

다시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 체험을 1868년에 외편 3권을, 1870년엔 2편 4권으로 출판하였다. 뿐만 아니라 외국 견문을 통해 방대한 양의 영문서적을 구입하여 번역하는 등 일본이 나아갈 길을 책을 통해 계몽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서양사정」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 인세로 1868년 지금의 게이오기주쿠 대학의 전신인 게이오기주쿠를 설립하게 되었다. 그는 「외국인 초빙교수」를 대거 초빙하여 신학문을 가르침과 동시에 국민계몽을 목적으로 1882년 「지지신보」(時事新報, 산케이(産経) 신문의 전신)를 창간하는 등 명치 초기 명치천황의 입각 제의를 사양하고 정부 밖에서 학문 연구와 계몽사상교육, 토론교육 및 언론활동 등 명치유신의 이론적 토대와 인재 양성에 주력하였다.

후쿠자와는 「西洋事情」(서양사정)을 필두로 1872년 간행된 「學問のすゝめ(학문의 권장)」, 1875년에 저술한 「文明論之概略(문명론의 개략)」을 비롯하여 다양한 방면에 걸쳐 100여권에 이르는 저술 또는 번역본을 출간하였다. 이렇듯 다양한 방면에 걸친 저술 활동을 통해 그가 지향했던 목표는 오직 하나, 문명개화를 통한 일본의 근대화, 즉 국력 신장에 있었다. 특히 근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후쿠자와는 자유나 독립이 충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개인주의에서 벗어나 공동체 정신을 강화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전통과 관습에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상은 프랑스 정치 철학자인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 1805-1859)을 비롯하여 프랑스 역사가 기조(François, Guizot, 1787-1874)와 영국 철학자 밀(John Stuart Mill, 1806-1873) 등의 사상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알수 있다. 그럼 후쿠자와의 대표작인 「西洋事情(서양사정)」, 「學問のすゝめ(학문의 권장)」, 「文明論之概略(문명론의 개략)」을 중심으로 후쿠자와의 사상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3. 후쿠자와 유키치의 사상

가. 서양사정(西洋事情)

후쿠자와는 에도막부의 명을 받아 1860년에 미국을, 1862년에는 유럽을 방문한 후, 그 결과를 앞에서 기술했듯이 1866년에 초편 3권으로 발간한 문헌이다. 이듬해 1867년 다시 미국을 방문하였고, 귀국한 뒤 그 기행문을 앞에서 논했듯이 1868년에 외편 3권으로 1870년에는 2편 4권으로 간행하였다. 초편 세권은 정치를 시작으로 세법, 국채, 지폐, 상사, 회사, 외교, 병역제도, 문학, 기술, 학교, 신문 등 20항목에 걸쳐 서양문명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2권 2와 3권에서는 미국, 네덜란드, 영국편을 설정해 각국의 역사, 정치, 군비, 재정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그 주요한 내용을 보면 정치에 대해서는 정권이 군주정, 귀족정, 공화정의 세 가지 정권으로 구분되며, 영국에서는 이러한 정권을 조합하고 있다고 보면서 특히 영국에 관하여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문명국이란 법률로서 자유와 종교가 보장되고, 기술과 문학을 진흥하며 학교에서 인재를 교육하고, 안정적인 정치 아래 산업을 영위하며, 병원 등을 설립하여 빈민을 구제하는 것이라고 논하고 있다. 또한 외교에 대해서도 통상을 통해 각국의 군주 사이의 관계를 구축하고,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에 따라 대사를 상호 파견한다는 외교제도에 대하여도 소개하고 있다.

나. 학문의 권장(學問のすゝめ)

후쿠자와는 명치유신 성립이후 재야에서 일관되게 일본 근대화의 방향성을 제시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후쿠자와의 계몽교육활동은 국가 및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저술을 통한 계몽활동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이었다. 그 대표적인 성과의 하나가 「학문의 권장」이다. 1872년 2월에 초판을 출판한 이후 1876년 11월 마지막 편까지 일본 국민에게 끼친 영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었다. 당시의 자료에 의하면 국민 160명 중 1명이 이 책을 읽었다하니 이것만으로도 일본의 근대의 여명기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후쿠자와에게 열광했는가를 알 수 있다. 이렇듯 일본국민을 열광의 도가니로 빠뜨린 「학문의 권장」이 어떤 내용인가를 약술해보자.

시작은 “하늘은 사람 위에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로 시작한다. 후쿠자와에 의하면 사람은 본래 태어나면서 상하 귀천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 도막부시기까지 일본은 현실적으로는 현우(賢愚), 귀천(貴賤), 빈부(貧富)에 의한 신분의 차이가 격심했던 시기였다.

후쿠자와는 이러한 차이가 학문과 학문하려는 것에 의해 생긴 것이므로, 즉 학문의 차가 그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귀(貴)도 부(富)도 출세도 지식과 학문에 의해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빈곤한 삶 그리고 하인이 되는 것도 무지하고 무학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좋은 정부가 될까, 무능력한 정부가 될까도 국민의 덕과 부덕, 지와 무지에 의해 정해지므로 국민도 폭정을 피하고 싶다면 하루빨리 학문에 정진해 재덕을 높여 정부와 대립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쌓아야 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에 정진해야 한다고 한다. 오늘날의 상황에서 보아도 너무나 지당한 논리를 펼친 것이다.

나아가 일반국민이 신분의식으로부터 해방, 즉 사민평등의 실현과 주체성을 확립하고, 일신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학문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다. 나라 안에 국민들이 기력이 없으면, 국력도 쇠약해지게 되며, 그 결과 개인의 독립이 곧 일국의 독립과 직결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후쿠자와의 이러한 사상은 기존의 신분의식이 여전히 남아있었던 당시 사람들에게 신분제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는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선각적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이 책이 일반국민들을 열광시킨 것은 아마도 신분제도 타파라는 내용이 그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후쿠자와의 사상 및 교육관은 일반국민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다. 「학제」 5) 공포의 전날인 1872년 8월 2일 문부성은 ‘대정관포고(大政官布告)’, ‘학사장려에 관한 피양출서(學事獎勵に關する被仰出書)’ 및 ‘학제서문’에서 “사람들이 자립하여 생활수단을 세우고, 사업을 활발히 하고, 그 생애를 완결하는 근원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닌 몸을 수련하고, 지식을 늘리며, 재능기예를 늘리는 것에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문의 연마 밖에 없다. 그래서 학문은 사람이 입신하는 자본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인간은 학문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일반국민들에게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논리는 「학문의 권장」의 초판의 논리 및 주장과 동일하다. 「학문의 권장」은 아직까지도 일본 사회에서 읽히고 있으며, 일본 교육계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큰 저작으로 인정되고 있다.

다. 문명론의 개략(文明論之概略)

이 책은 1875년에 출판되었고, 총 10장으로 구성되어있다. 그 내용은 서양과 일본의 문명을 비교 한 문명론으로 1877년, 1882년에 걸쳐 간행 된 다구치우키치(田口卯吉, 1855-1905)의 「일본개화소사」(日本開化小史)와 함께 명치 초기의 대표적인 문명론으로 꼽힌다. 그 주요한 내용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제 1장에서는 토론에 대하여 논하면서 자신의 이론과 상반되는 상대의 논리에 대해서도 “두 눈을 열어 장점과 단점 모두를 보라”며 타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한다는 실용주의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점은 상대와의 소통을 활발히 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는 「학문의 권장」의 논리와도 상통하는 것이다.

5) 1872년 공포한 학제란 일본 최초로 근대적 학교제도를 정한 교육법령으로 프랑스의 학제를 모델로 이 법령에 의해, 일본 전국을 8개 대학구로 나누어 1대학 구에 대학을 1교씩 8개교의 대학을 설립하고 1개 대학구를 32 중학구로 나누어 전체 256교의 중학을 설립하고 1개의 중학구를 210개의 소학구로 나누어 전국에 5376교의 소학교를 설립할 것을 정했다. 이 법령의 시행 목적은 “...학문은 인간이 입신할 수 있는 자본이라 할 수 있으며 인간이 학문을 하지 않고는 좋다고 할 수 없다. 금후 모든 인민은 반듯이 자제를 학교에 입학시키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싶다. 부형들은 이러한 취지를 인식하여 자제들을 애정을 가지고 반듯이 공부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한다. 그 후 학제는 1879(명치12)년 교육령(教育令)의 공포로 폐지되었다.

제 2장에서는 일본문화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서양 문명을 목적으로 하며 후쿠자와는 문명을 세 단계로 나누어 최상의인 문명국, 반개국, 야만국으로 구분⁶⁾ 하는데 이 중 일본을 반개국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유럽의 국가에 대해서도 현재 진행형으로 간주하고 있다. “서양도 외교 법에 관해서는 헛소리만 할 뿐 아무것도 아니다”고 라고 평가하면서 후쿠자와는 서양은 일본이 지향해야 할 이상은 아니지만 어디까지 일본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서양문명에 두고 있다. 특히 내면적인 면인 정신문명을 받아들여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영어권 문명을 모범적인 것으로 보고 받아들일 권고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막부와 황실이 적당히 균형을 유지해 왔다고 보면서 「국체론」⁷⁾ 을 전개하여 외국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한 국체가 유지된다고 보고 있다. 국체에 관해서는 황실의 혈통을 유지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며 중요한 것은 국체를 유지하는 것이며 그것이 외국의 침략 지배를 당하지 않는 일이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력을 쌓아 구습을 타파하고 서양의 문명을 하루빨리 받아들여 국력을 신장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즉 지식혁명이야말로

- 6) 제1단계(야만) ; 주지에는 숙소가 없고, 음식에 정해진 것이 없고. 먹을 것도 없다. 편리를 쫓아 무리를 지어 있지만, 편리가 없어지면 금새 산산조각이나 혼적도 없어진다. 또는 장소를 정하고, 농업·어업을 하며 의식(衣食)이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기계를 사용할 생각도 안하고 문자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법은 없다. 자연의 힘을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이 베푸는 은혜와 위광에 의지하고 우연한 화복을 기대하는 것만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자가 없다. 이를 야만적이라고 하며 문명에서 한참 뒤떨어져 있다.

제2단계(반개): 농업의 길은 크게 열리고 의식(衣食)도 부족한 것이 없고 집을 지어 거리를 만들고 외관은 한 나라이지만, 그 내실을 보면 부족한 것이 매우 많다. 문명은 활발하지만 실학에 노력하는 사람이 적고 사람 교제에 대해서는 시기심과 질투심이 강하고, 마음은 깊지만 사물의 이치를 논할 때 야만, 의심을 품고 캐묻는 용기가 없다 … 다른 사람을 흉내 낸 세공은 잘하지만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연구는 부족하고, 오래된 것을 공부해도 그 이전을 재생산 할 줄 모른다. 인간의 교제는 규칙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습관에 압도되어 규칙의 체제를 이루지 못한다. 이것을 반개라고 하며 아직 문명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다.

제3단계(문명). 천지(세상)의 모든 사물을 규칙 안에 편입시키지만, 그 중에서 스스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사람들의 기풍도 활발하여 구습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몸을 통제할 수 있고 타인의 은혜와 위광에 의존하지 않으며 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덕을 쌓고 지혜를 삼기지 않고 자신을 닦아 과거에 구애되지 않고 현재에 만족하지도 않는다. 조그만 일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의 대성을 목표로 진행하며 성취하고도 물러서지 않고 소망을 이루고도 멈춰 서지 않는다. 학문의 길은 상상이 아니라 발명의 기초를 닦으며 공업과 상업은 나날이 활발히 번성하여 행복의 근원을 이루고 하고 행복의 근원을 깊이하고 인지(人智)는 현재도 사용하지만 여분이 남아 후일을 위해 투자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것을 현대의 문명이라 한다. 야만·반개의 상태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할수 있다. (福沢諭吉三浦良訳 『文明論之概略』第一章議論の本位を定める事13-14쪽). (2행 부터 첫행에 열을 맞추었음)

- 7) 통상 일본주의라 하며, 시대의 변천에 따라 의미가 바뀌어 왔으나, 혈통주의를 중요시하고, 천황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국가체제의 우월함과 영구성을 강조한 이론.

일본이 사는 길이며 이것이야 말로 명치 이후 일본이 추진해온 변영의 진로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일본 황실에 대해서는 외관을 장식하는 것을 그릇된 일이라고 경계를 한다. 영국왕실이 번창하고 있는 이유는 왕실이 허영을 줄이고, 국민의 권리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며 그로 인해 정치가 발전되고, 국력도 신장됨으로써 결국에는 왕실의 지위도 높아지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보고 있다. 이렇듯 일본의 왕실도 이러했더라면, 에도 말기부터 명치에 걸쳐 존황주의자(협소한 극우파)들에 의한 테러 행위는 없었을 것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후쿠자와는 국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내셔널리티(Nationality)는 자타를 구분하여 스스로 독립하는 일

첫째, 국체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세상의 논의는 제쳐두고, 우선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하여 설명한다.

①내셔널리티는 자타(自他)를 구분하며 스스로 독립하는 일

체(體)는 합체를 의미하며 체재를 의미한다. 이것저것 물건을 모아 무언가를 만들어 다른 것들과 구별 할 수 있는 형태를 말한다.

그러므로 국체란 한 종족 인민들이 모여 고락을 함께 하며 다른 나라 사람에 대해 자타의 구별을 하고 자국민끼리 서로 타국가의 국민들보다 서로 중요시 여기고 서로 힘을 모아 공생하며 타 국민을 위해서보다 자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여 한 정부 아래에서 스스로 지배하고 다른 정부에서 제어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화복(禍福) 모두 앓고 독립하는 것을 말한다. 서양말로 내셔널리티라는 것이 이것이다.(三浦良 訳福沢諭吉『文明論之概略』第二章西洋の文明を目的とする事22쪽).

제 3장에서는 문명의 본질을 논하고 있다. 후쿠자와는 문명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문명이란 좁은 의미에서 보면 의식주(衣食住)의 안락 넓은 의미에서 보면 마음을 고귀하게 하는 일이다. 즉 좁은 의미에서는, 인력으로 필요이상으로 인간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의식주의 허식을 늘려간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반대로 넓은 의미에서는 의식주의 안락만이 아니라 지식을 연마하고 덕을 갖추어 인간을 고차적 위치에 오르게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것이다. …원래 문명이란 상대적인 말로서 문명이 미치는 곳에는 한계가 없다. 다만 야만 상태에서 벗어나 서서히 진보를 한다고 말할 따름이다. …문명을 영어로는 ‘Civilization’이라고 한다. 라틴어의 ‘civitas’에서 유래된 것으로 ‘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문명이란 인간교제(사회)가 점차로 개선되어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며, ‘야만무법(野蠻無法)’의 독립에

반하여 한 나라의 체제를 갖는다는 의미이다. … 문명은 매우 중요한 것이며 인간 만사는 모두 문명을 목표로 삼지 않는 것이 없다. 제도와 문학, 상업과 공업, 전쟁과 행정 등 그 모든 것을 서로 비교할 때, 무엇을 목적으로 삼아 그 이해득실을 논하겠는가? 오직 문명을 진진시키는 것을 이득(利得)으로 삼고 그것을 퇴보시키는 것을 해(害)와 실(失)로 삼을 따름이다. …인생의 목적은 의식(衣食)만이 아니다. 만약 의식(衣食)만 목적으로 한다면, 인간은 개미나 꿀벌 같은 것이다. 이것을 하늘의 약속이라고는 할 수 없다. 또는 마음을 고귀하게 하는 것만으로 문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천하의 모든 사람은 더러운 도시에 살고 물을 마시는 안회(顔回)⁸⁾처럼 될 것이다. 이것을 천명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은 심신이 모두 안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문명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람의 안락에 끝이 없고 마음의 품위도 끝이 없이 있는 것이 아니다. 고상하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진보할 때를 두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명은 사람들의 안락과 품위의 진보를 두고 말하는 것이다. 또한 사람에 안락과 품위를 얻게 하는 것은 사람의 지덕의 진보라 할 수 있고 문명이란 결국 사람의 지덕의 진보라고 할 수 있다.(三浦良 訳 福沢諭吉 『文明論之概略』 第三章 文明の本旨を論ず33-35쪽)

이렇게 문명을 정의하면서 후쿠자와는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1806-1873)의 <경제론>이론을 이용하면서 군주정치나 공화정치가 다 같이 좋을 수도, 그리고 다 같이 나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그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정치 체제가 아니라 문명에 유익한 일을 많이 한 정부가 좋은 정부이며, 정치의 선악 여부는 그 국민이 도달한 문명의 정도를 살펴서 결정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이런 논리를 전개하면서 그는 이 세상에는 아직도 문명의 극치를 실현한 나라는 없으므로, 지선지미(至善至美)의 정치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三浦良 訳 福沢諭吉 『文明論之概略』 第三章 文明の本旨を論ず45쪽).

제 4장에서는 “한 나라의 문명은 국민 일반의 지덕(智德)의 양”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제 5장에서는 4장에서 논한 내용을 보다 상세히 논하면서 일반 국민은 단순한 다수결이 아닌 지덕(智德)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 경제학자 인 밀이 논한 수정 공리주의의 입장과 유사한 사상이다⁹⁾. 이는 유신이 일반국민의 지력에 의해 변혁된 것이라는 점을 반복해서

8) 안회(顔回)는 공자의 수제자로 누추한 동리에서 궁색하게 살면서도 천명을 즐겼다고 전해지는 인물이다.

9) 후쿠자와 유키치는 이 장에서 밀(Mill)의 사상에 담겨있는 민주주의 정치체도의 허점을 「문명론의 개략(文明論之概略)」에서 깊이 통찰하고 있다. 예를 들은 내용을 살펴보면

말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볼 때 후쿠자와가 즐겨 읽었다는 밀의 자유론적 사상이 은연중에 후쿠자와의 사상의 토대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제 6장에서는 덕(德)과 지(智)에 대해 논하면서, 덕(德)은 옛날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며, 지(智)는 날마다 변화하는 것이므로 지(智)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라고 특히 강조하고 있다.

제 7장에서는 지덕(智德)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과 지덕에 관하여 시대와 장소를 통해 지덕(智德)이 어떻게 발휘되어 왔는가에 대해 논하며, 도덕에 의한 통치와 법에 의한 통치를 논의하면서 법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 8장에서는 서양문명의 유래에 대하여 논하고 있는데, 교회의 존재, 십자군, 종교개혁과 관련지어 국민들의 자유정신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17세기 이후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다양한 상층사회의 변혁을 배경으로 일반국민에게 지식의 진보가 있었다고 하면서 이 점이 일본과 큰 차이점이라고 말하고 있다. 달리 말해 일본에서는 계급이나 지역을 대표해서 변혁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적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제 9장에서는 일본 문명의 유래에 대해 언급하지만 제 8장과는 대조를 이룬다. 일본은 권력의 편중이 많은 분야에 걸쳐 존재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통치자가 자주 바뀌었지만 핵심적인 관심은 누가 권력을 잡을까에 있었지, 일반 국민들의 생활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는 것이다. 즉, 정치권력자의 교체가 곧 일본 정권 교체의 역사라는 점을 밝히면서, 누가 권력을 잡든, 일반 국민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들은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시민 계급이 일본에서 발달하지 못한 것은 봉건사회에서 인간이 변화를 두려워해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는 정교한 제도를 발달시켰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¹⁰⁾. 그리고 후쿠자와는 너무 정교한 강력한 봉건제도가 국민의 변혁을 희망하는 힘을 빼앗아 그저 국민들에게 현상 유지만을 바라는 마음을 형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때문에 오랫동안 학문은 현상을 변혁하는 힘이 되지 못했고, 이러한 환경 때문에 문명화와 경제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렇듯

흥미롭다. 민주정치는 다수결에 의한 지배를 원리로 하는데, 그 결정이 51 대 49로 대표자가 선출되고, 이들이 다시 국회에서 51 대 49로 어떤 법안을 입법한다면, 이 경우를 산술적으로 계산해볼 때, 25%(1/4)가 남은 75%(3/4)를 지배하는 비율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밀은 「대의정치론」에서 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결과가 민주정치에서는 ‘국민의 주장으로써 정부를 시달리게 할 우려가 있다’(三浦良訳 福沢諭吉 『文明論之概略』 第三章 文明の本旨を論ず41쪽.

10) 이에 관해서 니토베이나조(新渡戸稲造, 1862-1933, 동경여자대학 초대학장, 국제연맹 사무차장 등 역임, 5000엔 권 초상화)도 그의 저서인 武士道(PHP문고)에서 에도시대 신분 중 사민(사농공상) 중에서도 상업을 제일 아래에 둔 것은 돈의 힘이 권력과 결부되어 부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짐작했기 때문이라는 주장하고 있다.

제9장까지는 일본문명이 늦은 이유 등에 관해 논하면서 하루빨리 서양문명을 흡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 10장에서는 개국을 통한 자주독립국을 이루기 위한 여건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이것은 특히 당시 일본 외교 통상에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컸다. 에도시대를 붕괴시킨 역할을 한 국학파가 황실학파의 국제론에 비판을 가한 것에 대해서 후쿠자와 유키치는 의문을 제시한다. 실제로 명치에서 소화에 이르는 기간 동안 황국사관이 선전되고 결국 패전에 이르기까지 황실학파가 권력의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후쿠자와는 제 2장에서 논의한 것처럼 황실학파의 견해와는 거리가 있다. 그렇다면 국가의 국력을 증진시키려는 사상이 좀 더 확산되었다면, 패전이라는 비극적 역사는 겪지 않을 수 있었다는 가정도 가능하다.

4. 후쿠자와 유키치의 교육관 및 인간관

후쿠자와 유키치의 인간관과 교육관을 잘 나타내고 있는 저작이 「학문의 권장」(學問のすすめ)이다. 후쿠자와는 「학문의 권장」에서 “하늘은 사람 위에 사람을 만들지 않았고, 사람 밑에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며 당시 일본인에 대하여 “킨교쿠노미”(金玉の身)라고 보았다. 즉, 사람 스스로가 보물이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연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간관을 지닌 인물이었다. 그가 주장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보물이 되기 위해서는 학문을 통해 독립심과 자존감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도 진정으로 독립된 국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책에서 후쿠자와는 당시의 교육자와 사상가들이 천황중심사상으로 국민을 교육하고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독립국가로서 성장할 수 없다고 비판을 가했다. 그가 주장하는 것은 일본의 진정한 자립자존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학문을 통해 스스로 정진할 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렇듯 후쿠자와는 1868년 명치 신정권이 설립된 후에도 당시 여론을 주도하던 지식인 집단들의 국가중심, 천황중심의 교육과는 다른 방법으로 일본의 근대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은 그의 사상에 적잖은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저작활동에 의한 후쿠자와의 계몽활동은 유명하다. 앞에서 기술했듯이 그는 「학문의 권장」에서 “나라 안의 인민이 기력이 없으면 일국의 독립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즉, 개인의 독립이 일국의 독립과 연결된다는 것이다. 후쿠자와의 이러한 개인의 독립정신은 에도시대까지 존재했던 신분제도의 의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후쿠자와의 이러한 사상은 앞에서 논한 1872년 일반 국민들에게 교육의 문호를 개방하는 「학제」를 공포하는 일로 이어진다. 학제가 공포됨으로써 그때까지 신분 중심의 엘리트 사회였던 일본이 모든 국민들에게 학교의 문호를 개방해 학력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학력 중심의 엘리트 사회의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가. 교육관

앞에서 논한 「문명론의 개략」에서 후쿠자와 유키치는 “경제적 빈부가 천연 자원의 많고 적음에 의존하지 않고 실제로는 국민의 지력과 그 지력의 활력이 국력의 우열의 토대가 된다.”는 주장은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상은 지금은 당연한 것이었지만, 당시의 사상으로는 획기적이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비옥한 인도가 가난하고 천연자원이 적은 네덜란드가 부유했던 이유는 네덜란드가 인도에 비해 뛰어난 지력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영국이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문명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영국의 금융제도에 있다고 보았다. 이런 점에서 후쿠자와는 일본이 하루빨리 봉건제도의 폐쇄성에서 벗어나 서양의 앞선 문물과 그들의 의식을 배우고 알아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 후쿠자와는 명치유신의 정치적 지도자인 요시다 쇼인(吉田松陰1830-1859)과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1836-1915, 1882년 임오군란 후 조선정부의 고문 역할을 한 정치가) 등과 교류하며 일본의 개항과 개화에 대한 신념을 갖고 이를 적극 주장하고 설파하였다. 1871년 명치 의회 개설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후쿠자와는 적극적인 의회 개설론자들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영국의 헌법에 대해 연구할 것을 주장했다.

1871년 당시 명치유신 이후 후쿠자와의 동료들은 신정부에 출사하였다. 그러나 후쿠자와는 앞에서 기술했듯이 정부로부터 계속적으로 정계에 입각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그 이유는 지식의 진보를 위해서는 독립된 지식인층 육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명성을 들은 명치천황도 그에게 여러 차례 입각 제의를 하였지만, 그때마다 그는 이를 사양하였다. 그 이유는 앞에서 기술했듯이 교육을 통한 인재의 양성과 일본의 계몽에 전념하는 것이 긴 안목으로 볼 때, 일본의 발전에 더 중요한 요소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한편 정치개혁을 위해서 그는 재야에서 1871년 앞에서 논한 제2의 명치유신이라 불리는 폐번치현(廢藩置縣)¹¹⁾과 1873년 막부토벌을 목적으로 종래막부가

11) 에도시대까지 통치를 구분한 ‘번’을 폐지하고 지방통치를 중앙관하로 일원화하기 위해

관할하던 모든 조세징수의 권한을 금지한 지조개정(地租改正)¹²⁾ 등의 정책을 적극 시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주장하였다. 폐번치현 정책은 당시뿐만 아니라 그 후로 막대한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만인평등론 사상으로 싹트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천황아래 만인평등론이라는 다소 제한된 형태의 평등론이었지만 그의 이러한 주장은 현대 일본의 평등사상의 출발점인 것이다.

후쿠자와는 그의 자서전에서 그가 정부에 출사하기를 싫어했던 속사정을 이렇게 털어놓았다.

첫째로, 정부가 개국문명의 방침을 정해놓고 대대적으로 국정을 개혁하는 건 좋지만, 관리들이 국민에게 함부로 거드름을 피우고 있다. 그 거드름도 행정상의 권위라면 나름대로 이유가 되겠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공연히 거드름을 피우며 즐거워하는 것이다.… 둘째로, 정말 난처하지만 관리들 전체의 분위기를 보니 품위가 없다.… 셋째로, 막말에 근왕·좌막 두 파가 동서로 나뉘어 있었을 때, 나는 단지 과거의 문벌제도가 싫고 쇠국양이가 싫어서 애당초 막부에 동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런 정부는 타도하는 게 좋겠다며 늘 기염을 토했다. 하지만 한편으로 근왕파의 꼴을 보니 쇠국양이론에 있어서는 막부보다 오히려 한술 더 뜨는지라, 도저히 그런 자들에게 가담할 수 없었다. … 네 번째로 일본 전국의 사족은 물론 농사꾼이나 조년의 자제들까지 조급이라고 글을 읽을 줄 알면 모두 관리가 되겠다고 한다. 설령 관리가 되지 못하더라도 아무튼 정부와 가까이 지내며 뭔가 돈벌이라도 해보겠다고 설쳐대니, 그 모습은 냄새나는 곳에 파리가 피는 듯했다. … 한 나라의 독립은 국민의 독립심에서 솟아나는 것이다. … 내 스스로 그 본보기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아무것에도 연연하지 말고 오로지 독립독보(獨立獨步)를 결심한 이상, 정부에 매달릴 생각도 없다, 관리들에게 의지할 생각도 없다(후쿠자와 유키치, 허호역, 2006: 337-342).

이렇듯 후쿠자와 유키치가 정치적 경력을 꺼려했던 이유는 교육과 정치, 즉 정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교육과 분리해야 한다는 교육관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그는 명치유신을 계기로 일본의 교육이 정치에 이용당하며 모든 교육이 정치 중심으로 움직이며 이끌려가고 있다며 비판하며 정치가 변해야 교육도 변

‘부현’을 설치한 행정개혁이다. 개혁의 취지는 지배계급인 일족을 없애고 중앙집권제도를 확립하는 한편 신분해방령을 공포해 계급차별(노예제도)을 없애고, 평민신분을 부여하는데 있다.

12) 조세 제도 개혁으로 이 개혁에 의해 일본에서 처음으로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권이 확립되었다.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후쿠자와의 사상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시사신보에 쓴 정치와 교육은 분리해야 한다는 사설인데, 이 사설은 1884년 12월 7일과 8일에 「政治と教育は分離すべし」는 제목의 사설이다. 이 사설로 말미암아 1886년 이토정권에서 초대 문부대신을 역임한 모리 아리노리(森有礼, 1847-1889)¹³⁾에 의해 일본에 의무교육이 명문화되었다.

이 사설에 의하면 “정치는 인간의 육체를 억제하는 것이며, 교육은 인간의 마음을 양성하는 것”이라며 “정치는 긴급 의료 같은 것이며, 교육은 보통의 양생법 같은 것”이므로 이 두 가지는 결코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신체에 이변이 있을 때 아픈 곳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다시 고통이 오듯이 건강한 사람에게 강한 약물을 투여하거나 수술을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실제 건강법이며 양생법인 교육이 역사상 종종 치료법으로 혼동되어 국민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초래했다”고 하였다.

후쿠자와는 이러한 사상에 의거해 훗날 덕육(德育), 즉 충군애국을 중심으로 한 수신(修身) 도덕교육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을 때도 국가가 국민에게 도덕교육을 주입시킨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였다. 그는 유신초기에 국민교화를 목적으로 1879년 8월 명치천황이 참의(參議)겸 내무경(內務卿)이었던 이토히로부미와 참의겸 문부경(文部卿)이었던 테라지마무네노리(寺島宗則, 1832-1893)에게 지시하여 천황의 시강(侍講, 천황의 스승)이었던 모토다나가사네(元田永孚, 1818-1891)에 의해 작성된 교학성지(教學聖旨)¹⁴⁾에 대하여 강하게

13) 모리는 1865년 19살 때 런던대학에 유학 후 초대 주미대사, 청국대사, 영국대사 등을 역임한 사람으로 주영국 일본대사 시에는 영국의 철학자이자이며 사회학자인 스펜서(Spencer, 1820-1903)와 친분관계를 맺고 있었다. 당시 모리가 스펜서의 영향을 받았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일본이 빠르게 서구화되기 위해서는 언어습득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심지어 일본어를 없애고 국어를 영어로 하자는 주장을 피력한 바도 있었다. 1880-90년대 명치 일본에서는 스펜서의 많은 저작이 번역되었는데, 그 당시를 아직까지도 ‘스펜서 시대’라고 불리어지고 있다. 특히 스펜서의 교육관계론 저작인 1860년의 「교육론: 지, 덕, 체(Education : Intellectual, Moral, and Physical)」은 1880년에 『사씨교육론(斯氏教育論)』으로 번역 출판되어 스펜서의 사회유기체설과 사회진화사상을 일본 전역에 넓게 유포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듯 모리는 영국을 모델로 한 근대화를 주장하면서 “영국은 세계 제일의 문명국이지만 일본은 이름 없는 동양의 한 작은 나라이다. 영국과 일본은 작은 나라이며 자원이 없는 것은 동일하지만 영국인과 일본인의 다른 점은 일본인은 무식하고, 무기력하고도, 몽매하며, 기성박약하다”며 “일본이 영국과 같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근대화된 학교를 하루 빨리 설립해 근대화에 필요한 서양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모리의 교육관은 도구적 효용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점에서는 지, 덕, 체의 조화로운 인간발달을 주장하는 교육관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889년 2월 12일 명치헌법 기념일에 그는 국수주의자에 의해 암살당하는 비운을 겪게 된다.

14) 총론인 教学大旨와 소학교에 관한 「小学条目二件」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명개화의 조류에 대해 제정일치 황국사상을 기반으로 인민을 교화시키려는 취지로 천황의 이름으로 제시된 것으로 그 내용은 1872년 학제공포 이후 명치정부의 교육 정책이 지식 교육에 편중되어있어 그 폐해가 심각해 유교를 기본으로 하는 도덕 교육을 추가하여 교육과

비판하였고 반론을 제기하였다.

후쿠자와는 전쟁이 필요하면 전쟁을 위한 교육, 평화가 필요하면 평화를 위한 교육으로 바뀌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고는 위험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교육은 개개인의 인간 성장과 발달에 관한 일이고, 이에 반해 정치의 인간의 생활조건을 마련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본래 별개의 것이며 분리되어야 한다는 사상을 피력한 것이다. 또한 세계사에서도 정치와 교육을 혼동하는 나라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그는 정치와 교육을 혼동하는 것은 건강한 인간의 식이요법과 병자의 식이요법을 잘못 해석하는 것에 비유하였는데, 이는 명치유신 이후의 일본교육이 건강한 인간을 처음부터 병자로 취급하면서 교육시키려한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이렇듯 학교에서 정치적 지식과 능력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는 정치지향적 교육은 충군애국형 인간육성에 중점을 두며 근검절약하는 국민의식을 기르자는 것이었지만, 이런 것들은 결국 정치를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참된 의미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이 선량한 사람으로 성장해주길 바라며 그것이 교육의 본래의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근대국가의 성립으로 인해 교육이 국가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면서 무엇보다도 교육을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교육관이 의무교육(compulsory education)의 형태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일본의 경우도 명치유신을 계기로 교육에 대한 사고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이렇듯 근대국가의 성립과 함께 모든 정치가와 교육자들은 교육을 국가의 입장에서 보게 되었고, 교육의 본래 목적인 선량한 인간성 교육의 입장에서 보지 않았다.

명치유신에 공헌한 사람들을 유신의 지사(志士)라 하는데, 여기서 지(志)라는 것이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였다는 점에서 붙여진 경칭이다. 하지만 유일하게 당시의 인물들 중 후쿠자와만 지사라 불리어지지 않는다. 물론 후쿠자와도 유신의 동지들과 함께 국가를 위하는 충정은 그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않았지만, 후쿠자와가 품고 있던 지(志)는 정치가들이 생각하는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즉 그의 사상에는 학문의 진보 없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나라가 발전할 수 없다는 신념이 투철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후쿠자와의 사상은 아래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치라는 것은 한 나라의 일이다. 이 기능을 조화하여 국가의 독립을

도덕면의 균형을 잡기위해 효과적인 도덕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유년기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것을 기반으로 동년(1879)년9월에 「교육령」이 공포되어 그때까지 시행되어 왔던 학제가 폐지되었다.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안으론 정부의 힘이 밖으로 국민의 힘이 안과 밖이 상응하게 그 힘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정부는 生力 같은 것이며, 국민은 외적 자극과 같은 것이다. 만약 이 자극을 잃어 버려 그냥 정부가 맘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대로 내버려 둔다면, 국가의 독립은 하루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인신궁리(人身窮理)¹⁵⁾를 분명히 해 그 정칙으로 한 나라의 경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사람은 힘의 균형의 논리를 의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정부가 일신 하고 정부가 인간이 힘을 다하지 않지 않는 것도 아닌데 그 재력이 치졸한 것도 아닌데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은 것은 국민의 무지 즉 문맹이 원인인 것이다. 정부는 이미 그 원인을 알고 학술을 권하고 법률을 의제로 하며 상매방식 등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논설 등을 통하여 스스로 선례를 보여주면서 힘을 쏟고 있지만 오늘날 잘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여전히 독재 정부이며 국민은 여전히 무기력한 우민 상태이기 때문이다. …명치유신 이후…청년 학생들은 몇 권의 책을 읽으면 빨리 정부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생각, 상인들로부터 수백의 자본금을 빌려 정부의 이름을 빌려 장사를 하려고 하고 학교도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고, 설교도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고, 목축도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고, 열가지중 일곱에서 여덟 가지가 정부의 관리 통제 하에 있다. 이런 제도로 인해 세상은 점점 바람에 휘날려 관리들 손에 놀아나고 관리들의 요구에 응해야하며 관리들을 두려워해 그들에게 아첨하게 되어 조금이라도 독립 하고자하는 사람이 없어, 이러한 추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건디기 어려운 것이다…»(福沢諭吉『学問のすゝめ』 第四編学者の職分を論ず,3쪽)

후쿠자와의 이러한 사상에 대해 당시 정치가며 교육학자였던 가토히로유키(加藤 弘之, 1836-1916)는 후쿠자와의 논리를 자유주의적이며 매우 위험한 사상이라고 지적하면서 비판을 가했다. 또한 모리 아리노리도 가토히로유키와 유사한 견해를 피력하면서 후쿠자와의 교육관이 선진자유주의 국가의 교육관으로 그 당시 일본의 상태와는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럼 후쿠자와 유키치가 실제로 어떤 교육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후쿠자와의 고등교육에 대한 인식은 그가 게이오기주쿠를 설립할 때부터 다른 사상가들과 달랐다. 그는 국립대학은 폐지되어야 하며 모두 사립대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 이유는 대학을 국립으로 운영하게 되면, 국가가 재정을 부담하기 때문에, 가난하지만 지능이 높은 젊은이들이 대학에 와서

15) 에도시대 난학에서 생리학을 가르치며, 사람의 몸에서 알 수 있는 이치라는 뜻으로 쓰임.

지식을 습득하는 기회가 많아진다. 그 당시 유럽에서는 사회주의 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이 운동의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지력은 있지만 가난한 집안 출신의 청년들이었다. 이들 중에는 자신들의 가정적 배경의 영향으로 인해 자유로울 수 없었다고 보아 절대 평등을 주장하는 사회주의적 이상에 따라 혁명을 추동하려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러한 경우를 염려하여 후쿠자와는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는 가난하지만 머리가 좋은 자이다”라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그러한 청년들을 배출하지 않기 위해서 대학은 모두 사립대학이 되어 적당한 수업료를 받고, 품위 있는 사람들을 길러야 한다고 한 것이다. 이러한 사상을 사회 계급과 관련시켜 해석해보면, 가난한 집안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교육기회의 균등과 개인의 노력에 의한 자질의 향상, 그리고 업적에 의해 개인의 능력이 평가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는 오늘날의 인식과는 거리가 있는 사상이다.

다음으로 여성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일본의 교육을 역사적으로 보면 여성을 비롯한 장애인, 외국인들은 오랫동안 교육에서 차별을 받았던 존재였다. 특히 여성에게 고등교육의 문은 상당히 좁았다. 소학교 교육 이후에는 남자와 별도로 교육을 시키는 분리교육 재도를 실시하였고, 여성이 고등교육에 취학하는 경우에도 전문학교 교육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당시 문부관료 대정자유주의 교육운동의 대표자인 사와야나기 마사타로우(沢柳政太郎, 1865-1927)의 알선으로 특례로 도호쿠(동북)제국대학에 최초로 음악교육에 한정해 여성에게 문호를 개방해 1916년 2명의 이학사(理学士)를 배출했다. 그 후 도쿄제국대학도 1920년 청강생이란 명목으로 여성에게 문호를 개방했으나 1928년에 이 제도를 폐지했다. 한편 1921년에 설립된 도쿄와 히로시마에 설립된 문리과 대학에 정식으로 여자학생을 받는 제도가 생겼지만, 이것은 교원 양성을 위한 특수대학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도 인간으로서 존중 받아야 하며 그들을 위해서는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 당시 임시교육회의 위원이며 일본여자대학 설립자인 나루세 진조우(成瀬仁藏, 1858-1919)와 후쿠자와이다. 여기서 후쿠자와가 여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보자.

후쿠자와의 여성교육론은 1898년에 「여대학평가(女大学評価)」에 대해서 쓴 글에 잘 나타나 있다. 「여대학평가(女大学評価)」란 명칭 일본 여성에 대한 차별의 현실을 에도시대부터 읽혀지고 있는 여훈(女訓) 「女大学」을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는 여성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가? 그 내용의 대략은 이렇다.

구순고부노카이켄(九寸五分の懐劍, 여자가 호신용으로 가지고 있던 단검)을

가슴에 품고 있는 것처럼 일본 여성이 꼭 그 지식을 개발하기 위해 “항상 물리 사상을 떠나지 않고 항상 경제 법률의 요청을 잊지 않아야 한다(九寸五分の懐劍を懐中するに等しく専ら白衛の嗜みなり)と知る可し)”는 점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후쿠자와는 여자가 임신출세 하는데 있어서도 남자와 구별 없이 학문으로써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학문을 가르치는데 있어서도 남녀 구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사상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기 자녀들¹⁶⁾ 중 4명의 아들들은 모두 미국, 영국, 독일에 유학을 시켰으나, 5명의 딸들은 학교 기숙사 생활도 못하게 하는 등 명확한 남녀 차별주의 교육을 시켰다는 점에 있어서는 비판을 받고 있다.

후쿠자와는 교육의 목적을 자주 독립한 적극적인 국민성을 양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에 대해서도 주체성을 지니는 인간으로 육성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학문의 권장」에서, 학문의 닦는 목적을 「不頭獨立の大義を求る」(빈 머리로부터 독립하여 대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한 점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여성교육의 통칙으로 학문에 있어서는 성차별은 물론 학문전 공영역에 있어서도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그가 물리학을 주요 과목으로 보고, 모든 과학 분야를 바탕으로 연구를 해야 한다고 한 말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이 잘 드러난다. 특히 그가 물리학을 강조한 이유는 실학사상이 후쿠자와의 교육관의 바탕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일 것이다.

나. 인간관

후쿠자와를 평가할 때 일본인들 뿐 아니라 한국과 중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를 멸시한 사람’, ‘침략주의를 정당화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소화시대 일본의 대륙 침략의 근원은 이러한 후쿠자와의 사상에 터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면 왜 후쿠자와는 이런 평가를 받는 인물이 되었는가? 명치시대 이전까지 중국, 조선, 일본의 지식인들이 닦은 학문은 한문으로

16) 후쿠자와의 장남인 이치타로우(一太郎)는 게이오기주쿠 졸업 후 도미 코넬대학(Cornell University)에서 수학 후 1907년 게이오기주쿠의 3대 주쿠조로 취임 후 교육자의 길을 걷는다. 차남인捨次郎(스테지로우)는 1883년 게이오기주쿠 졸업 후 도미하여 MIT에서 철도공학을 공부한 뒤 귀국하여 山陽철도회사 기사로 근무하지만 1901년 후쿠자와 사망 후 時事新報社를 이어받아 사장으로 취임 후 大阪時事新報社를 설립 경영에 전념한다. 삼남인 三八(산파치)는 1899년 게이오기주쿠 졸업 후 도영 그래스고대학(University of Glasgow)에서 수학 물리학을 공부한 뒤 독일의 라이프니치 대학(Universität Leipzig)에서 수학을 전공한 후 1906년 게이오기주쿠에서 교편을 잡는다. 넷째인 大四郎(다이시로우) 게이오기주쿠 졸업 후 하버드대학(Harvard University)대학원에서 수학한 후 사업가의 길을 걷는다. 里, 房, 俊, 瀧, 光의 5명의 딸들은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결혼을 해 가정주부가 되었다. http://www.keio.ac.jp/ja/contents/stained_glass/2010/265.html

쓰인 중국의 지식인들이 쓴 글들이었다. 즉 동양문화의 중심지는 중국이었다 할 수 있다. 후쿠자와도 모든 휘호를 한문으로 쓰고 있는 것은 이런 전통 하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가 자신의 자서전인 「후쿠자와 유키치 자서전(福翁自伝)」¹⁷⁾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과거 그는 중국의 문학, 역사, 유교의 학문을 철저히 배웠다. 에도시대의 일본의 지식인에게 한문학, 이를테면 중국어는 배워야 할 필수과목이었고 공적이든, 사적이든 어떤 모임에서든지 요구가 있을 땐 즉시 직접 한시를 써 보이지 못하면 지식인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조선은 에도시대까지 일본인에게 한문학을 전해주고 가르쳐준 존경하는 나라였다. 그런데 왜 명치가 되어 갑자기 조선인과 중국인을 멸시하게 되었는가?

일본교육사학자인 야스카와 슈노스케(安川寿之輔)에 의하면 일본의 광신적인 천황제에 입각한 아시아 침략의식은 천황제 국가확립기의 「교육칙어」(教育勅語)¹⁸⁾가 아니라, 실은 후쿠자와 유키치의 「학문의 권장」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명치유신 이후 베스트셀러가 된 「학문의 권장」에서 논한 “일본에는 정부는 있지만 국민은 없다. 일신 독립하여 일국으로서 독립해야 한다. 즉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체적으로 독립하지 않으면 일본 전체의 독립도 있을 수 없다”는 후쿠자와 유키치의 말을 인용하면서, 일신 독립의 내용에 대해 후쿠자와가 기대하는 국민상이란 국가 의식아래 국민으로서의 힘을 길러서 개인의 생명, 재산, 명예까지 내던져 국가에 봉사하는 정신을 가졌을 때 ‘일신 독립’의 상태에 이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야스카와 슈노스케는 그의 저서 「후쿠자와의 아시아 인식」에서, 이런 일방적인 국가 봉사를 강요하는 것은 인간의 진정한 독립이 아니며 「십오년 전쟁」¹⁹⁾시의 광신적인 애국심 교육의 원형은 명치 초기 후쿠자와의 「학문의 권장」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²⁰⁾

「학문의 권장」에서 인간의 평등을 주장한 후쿠자와는 천황제를 긍정하고 제국헌법과 교육 칙어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탈아론>에서는 아시아 침략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있다. 아시아인에 대한 그의 차별적인 발언은 노골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의 이러한 발언 때

17) 1898년 7월 1일부터 1899년 2월 16일까지 총 67회에 걸쳐 「時事新報」에 게재되었다. 단행본은 1899년 6월 15일에 간행되어 지금도 게이오기주쿠대학에서는 매년 신입생에게 배포하고 있다.

18) 명치천황의 교육에 관한 칙어로 정부의 교육방침을 제시한 것으로 1890년 10월 30일 발표되어 1948년 6월 19일 국회 각의원의 결의에 의해 폐지되었다.

19) 1931년 만주사변부터 1945년 포츠담 선언에 의한 태평양전쟁(대동아전쟁 포함) 종결에 이르기까지 약 15년간에 걸친 전쟁을 총칭 한 호칭이다.

20) (安川寿之輔, 特集「韓国強制併合から100年」福沢諭吉のアジア認識 雑誌「週刊金曜日」2010年8月27日号).

문에 많은 일본의 사회학자들은 그를 ‘골수 민족주의자’, ‘일본의 아시아 침략의 선구자’라고 평가하고 있다.

「학문의 권장」에서 “하늘은 사람 위에 사람을 만들지 않고, 사람 밑에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라고, 인간의 권리와 인격의 평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현실 사회에서 인간에게는 귀천과 위아래가 있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학문의 유무에 따른 논리이다. 그래서 후쿠자와는 무엇보다도 학문을 권장한다. ‘학문 만능론자’인 그는 사농공상 이라든지 문벌제도, 봉건특권은 확실히 부정하고 있지만, 학문에 의한 인간의 귀천, 즉 지식과 학력이 있는 사람을 귀인으로, 학문이 없고 무식한 자를 문맹인, 즉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야만인으로 취급하고 있다. 후쿠자와는 인간의 가치기준을 학문의 유무, 즉 학문 만능론으로 본 것 같다. 이런 그의 사상은 지식의 유무에 따라 인간의 서열을 정하는 것인데,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도 적용하여 앞에서 기술했듯이 「문명론의 개략(文明論之概略)」에서 문명, 반개, 야만으로 국가들을 분류하고, 서열화했다. 이러한 점, 즉 지식이 없다는 점에서 후쿠자와가 아시아를 멸시하는 인식이 강하게 드러난 것이다. 서양적 학문의 기초가 없고 근대화에 뒤져있는 아시아와 아시아인들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사상에서 일본의 아시아 침략의 정당성은 당연한 논리의 귀결일 수 있다.

이러한 연유에서인지 후쿠자와는 미국이나 유럽 방문을 통해 서양문화에 압도되어 유학과 한학은 시대에 뒤떨어진 문명개화의 적이라는 사고를 갖게 된다. 이 시점에서 후쿠자와는 문명개화란 중국이 아닌 서양 문화를 일본의 문화로 변혁시키는 일이라고 의식하게 된다. 즉 일본의 개화는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 밖에 없고, 그것을 못하면 일본은 서양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아 지배를 받게 된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후쿠자와는 제국주의의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일본이 살아남기 위해서 서양문명을 하루빨리 받아들여 문명개화를 하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명치유신 이전에는 중국의 문물이 조선을 경유하여 일본으로 전파되었다. 특히 1607년 제1차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왔을 때 통신사에 포함된 사람들은 조선의 지식인, 의사 등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매우 존경을 받았다. 통신사가 숙박하는 곳마다 조선의 학자들의 휘호를 바라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고, 일본의 의사들은 조선의 한의사들에게 지도받기 위해 몰려들었다고 한다. 조선통신사는 1811년으로 막을 내렸다. 조선이 조정의 약정으로 사회가 혼란하고 계속되는 흉작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며, 일본 또한 흉작이 계속되어 통신사를 맞이할 수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통신사를 통한 문화교류가 단절되자 새로운 현상이 생겨나게 되었다. 즉 한국의 주자학에 대해 비판이 에도 막부 말기에 일어나기 시작하고, 일본에서 왕

양명학파가 기세를 떨치면서 주자학의 일본적 해석이 시작된 것이다. 이 때 일본의 국학자이자 의사였던 모토오리노리나가(本居宣長, 1730-1801)와 히라타야츠타네(平田篤胤, 1776-1843)가 道(유도柔道, 검도劍道, 다도茶道) 등 道로 끝나는 것은 일본 고유의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게 되었고 일본의 국학이 성립되었다. 이런 일본적 전통은 후쿠자와의 인간관과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후쿠자와의 인간관은 1870년대의 「학문의 권장」에서 교육은 인간의 선(善)을 기르는 것이며, 인간은 본래 평등하며 그 신분은 학문에 노력을 기울이거나 그렇지 않거나에 따라 차이가 생겨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880년 「시사소언」에서는 인간의 능력은 태어날 때부터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라고 논하고 있다. 이때부터 후쿠자와는 우생학(eugenics)을 주장한 프렌시스 골턴의 「유전적 천재」(Hereditary Genius)(1869)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한다. 이러한 사상이 탈아론에서 후쿠자와가 인종 및 유전이란 개념으로 「탈아론」을 주장하게 된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탈아론에서는 소통의 자유를 존중함으로써 진보가 달성된다고 보고, 소통을 억압하는 정부는 사라져야 한다고 한다. 즉 자유와 진보에 관해서는 아시아적인가 어떤가하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왜 유전으로 형성된 국민정신이 근대화 문명화의 조건이라고까지 말했는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유전자 운운 하면서 이론을 전개한 것은 역시 인종론적 관점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이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유전이라는 말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각기 다른 자질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본다면, 일본인은 인종적으로 우수한 인종이라는 논리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5. 나가는 말 : 후쿠자와 유키치, 일본의 마키아벨리인가?

후쿠자와 유키치는 일본 근대화, 즉 문명화에 선구자적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 당시는 막부의 쇄국정책과 더불어 양이론이 위력을 떨쳤던 시기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는 서양의 새로운 학문과 문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배움으로써 일본을 문명국으로 만들려는데 전 생애를 바친 사람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 평가일 것이다. 그의 자서전에서 의하면 그의 생애에서 가장 고생스러웠던 것은 저술과 번역 사업이었다고 고백할 정도로 그는 평생 학문에 매진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한 그의 꿈은 일본을 서양과 같은 문명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일본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하였고, 대한제국을 합병시켜 식민지로

다스렸으며, 미국과 태평양전쟁을 치를 정도로 강국으로 발전하였다. 비록 패전으로 끝나기는 했으나, 일본이 가진 지적인 힘은 일본을 다시 경제대국으로 부상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한국이나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제국주의 침략의 이론적으로 정립한 제국주의 옹호자이며, 인종 우월주의자로 비판받는 인물이다. 그러나 역사는 각국의 입장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수밖에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일본을 선진 문명국으로 만드는 기획자이며, 개척자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다.

앞에서 논했듯이 일본은 22명이나 되는 노벨상 수상자들을 배출한 국가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가? 후쿠자와 유키치가 꿈꾸었던 국가는 이들을 통해 현실화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강성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진 인물로 후쿠자와를 떠올릴 때 생각나는 또 한명의 역사적 인물이 바로 마키아벨리이다. 후쿠자와의 사상은 마키아벨리의 사상과도 일맥상통하는 점이 많다. 이들의 삶을 비교해 보면 어떠한 사상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여기에서 마키아벨리 사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자.

국가 통치에 대한 마키아벨리의 사상 속에는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성공하려면 이기주의를 억제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로마사 뿐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도 깊이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에서 국가는 인간의 결사체 중에서도 최고의 형태이다. 따라서 개인의 선악관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국가가 있어야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최고의 것이 되려면 도덕을 중시해야 하며, 국가 이성은 모든 개인의 의무와 도덕, 사회와 별개의 것으로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점을 주장한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지성을 갖춘 학자의 시선으로 그 당시의 이탈리아가 처해 있는 시대상을 보았다. 당시 이탈리아는 통일을 위해 외국의 간섭을 배제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대내적으로는 지배자끼리 싸우고 용병대끼리 대립했다. 따라서 마키아벨리는 이러한 무정부 상태를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국가 권력의 대립은 국가를 부패시킨다. 부패를 제거하고 통일을 달성하려면 강력한 통치자가 필요하다. 「군주론(De Principatibus)」의²¹⁾ 결론 부분을 보면, 그는 국가의 덕

21)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군주절대정치를 변호했다. 그가 절대군주제(despotism)을 옹호한 이유는 낙후된 상태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정치는 강력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측면에서 강력한 통치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권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마키아벨리가 분열된 이탈리아를 강력한 국가로 통

은 법의 우월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법치아래에서 시민의 덕을 세우는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다만 메디치 군주에 대한 피상적인 권고를 담고 있다. 즉 메디치 집안을 통해 이탈리아 통일군주의 출현을 희망하는 것으로 자신의 생각을 제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것이 훗날 그를 평가할 때 도덕을 배제한 전제정치를 찬양한 정치 이론을 주장한 사람 또는 정치 전략가라고 간주되는 이유가 된다. 그는 「군주론」에서 최초로 주권(sovignt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이 개념이 근대에 와서 개인의 권리와 의무는 국가 이익에서 규정해야 하며, 이 임무를 국가가 맡는 한 국가는 강력한 통일성을 기반으로 안정을 추구해야한다는 원리를 제시했다. 이러한 그의 정치사상은, 오늘날 즉 국가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물리적 힘을 사용할 때 이것을 공권력이라는 것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서 보면, 마키아벨리는 르네상스시기의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의 문제점을 현실적으로 논의한 정치 사상가이며, 윤리적으로 이상화된 사회를 묘사한 영국의 모어(Thomas More, 1477-1535)와는 달리 ‘시대에 적합한 정치 공동체의 변혁을 주장한 현실주의 정치철학자’로 평가해야 될 인물이다. 시오노 나나미(塩野七生)는 마키아벨리에 대한 비판과 옹호의 양극을 거부하는 입장에서 그를 평가하고 있다. 마키아벨리 사상의 독창성은 정치와 윤리를 분리한 데에 있으며,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선택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시오노 나나미, 1996).

후쿠자와 유키치의 말처럼 학자는 마땅히 일반인들의 여론에 개의치 말고 그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진리를 찾기 위해 끝없는 고행을, 삶을 운명으로서 삼고 살아야 하는 존재라고 믿는다. 아담 스미스가 처음으로 경제이론을 펴낼 때, 세인들은 그의 이론을 망설(妄說)이라고 공격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했을 때 이단으로 단죄되지 않았던가. 이렇듯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과 부합되지 않으면, 바른 사상이라 할지라도 쉽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국력의 정도가 국민의 교육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는 국제화된 오늘날에 후쿠

일시키는 데에는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지 결코 도덕적으로 부패하면 선한 정부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모르지 않았다는 것은 「강론」을 통해 밝혀졌다. 그가 「군주론」에서 강조한 것은 전략적 정치술의 유용성을 말한 것이다. 즉 병사가 사기와 총으로 전쟁을 하는 것과 같이 지배자는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것이다. 군주는 여론에 예민하고, 경제에 인색하며 방편에 따라서는 잔인해야 할 때도 있다.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날 때 그는 옳은 일을 한 것이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명예와 실리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마키아벨리의 사상을 간단히 표현하면 힘은 정의가 될 수 있고, 목적을 위해 어떤 수단도 동원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법도 무시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는 이런 근거에서 전제정치를 주장한 내용이 담겨있는 책이 「군주론」이다.

자와 유키치와 마키아벨리와 같은 통찰력을 가진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우치는 것은 현재 한국사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이나 교육자들이 한번쯤 그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을 바라며 이 논을 접는다.

【参考文献】

- 마즈다고이치로(松田宏一郎), 윤채영 옮김 후쿠자와 유키치 다시보기(1)-(7)』
Aporia Review of Books.
- 李炫熙(1986) 『征韓論의背景과影響』 大旺社.
- 시오노 나나미(1996). 나의 친구 마키아벨리. 오정환 역. 한길사.
- 강정인, 안선재 공역. 로마사 논고. Machiavelli, N. (2003). The discourses on the first ten books of titus livius. 한길사.
- 허호역(2006) 『후쿠자와 유키치자서전』 도서출판이산.
- 福沢諭吉(1960) 『福沢諭吉全集 第10卷』 岩波書店所収の論説.
- 中塚明(1977) 『近代日本と朝鮮』 三省堂.
- 中込道夫他(1986) 『「近代化」の再考—その思想的基軸を求めて—』 学文社.
- 中山伊知郎(1965) 『日本の近代化』 講談社現代新書.
- 村井実(1969) 『NHK市民大学叢書 6 現代日本の教育』 日本放送出版協会刊.
- 村井実(1990) 『全訳解説 アメリカ使節団報告書』 講談社学術文庫、第12刷.
- 村井実(2000) 『近代日本の教育と政治』 東洋館出版社.
- 「森有礼篇」(1967년1월) (大久保利謙編 『明治文学全集 3 明治啓蒙思想集』 筑摩書房.
- R.Pドーア著松居弘道訳(1970) 『江戸時代の教育』 岩波書店.
- マキアヴェリ著池田廉訳(1975) 『君主論』 中央文庫.
- 講座日本教育史編纂委員会編(1984) 『講座日本教育史 近代Ⅱ/近代Ⅲ』 第一法規出版.
- 堀松武一編(1985) 『日本教育史』 国土社.16. 『文明論之概略を読む』 上・中・下(1986)、
岩波文庫.
- 安川寿之輔(2003) 『福沢諭吉のアジア認識 日本近代史像をとらえ返す』 高文研.
- 安川寿之輔(2003) 『福沢諭吉と丸山真男 「丸山諭吉」神話を解体する』 高文研.
『大航海』 7卷(2008년6월), 新書館,(江戸から明治へ: 福沢諭吉が仕掛けた変化と連続の物語)』.
- Machiavelli, N. (1952). De principatibus. Trans. L. Ricci & E. R. P. Vincent. The prince.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要 旨

一國の国力は知力により決まるといっても過言ではない。日本の近代化は、明治期（1868－1912）というわずか50年にも至らない短期間で行われたものである。日本は江戸幕府の鎖国政策から脱皮し、明治維新を通して、東アジアにおいて近代国家としての偉業を成し遂げた最初の国でもある。明治維新の成功は日本に歴史的な栄光をもたらした。維新の開始とともに、当時の指導者らは知識こそ国力の向上につながると考え、日本が国際社会において生き残るため、自ら積極的に欧米に留学し、そこで学んだことを精力的に受け入れた。

本稿では、日本の文明化はどのような政策の下に、どのような時代的・歴史的背景で、どのような指導者のリーダーシップによって可能だったのか、強盛な国を作るという意志で始まった明治維新を代表する思想家であり、教育者でもある福沢諭吉の思想、殊に教育思想の分析を通して考察した。なかでも彼の代表的な著書である『西洋事情』『学問のすゝめ』『文明論之概略』の分析をとおして、彼の教育観、人間観などを解明した。本稿が示唆するところは、国力は国民の教育レベルにより左右される今日、福沢のような洞察力を持つ指導者の役割がいかに重要なのか、なぜ、日本がアメリカに次ぐ第2の知識強国となったのか、現在、韓国社会を率いる指導者や教育者にその役割がいかに肝要なことなのか、にある。

キーワード： 福沢諭吉 明治維新 近代化 教育 文明 韓国 日本
マキアベリ(Machiavelli)

투 고 : 2014. 8. 31
1차 심사 : 2014. 9. 13
2차 심사 : 2014. 10. 4